



《오후 네 시》
이멜리 노통브 지음 | 김남주 옮김 | 열린책들 | 191쪽 | 값 8,500원

《오후 네 시》

‘예’와 ‘아니오’ ... 물음에 대한 답이 주는 행간

글_정윤희 기자

“삶에 ‘예’나 ‘아니오’라는 대답은 없다. 그런데 마음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마

음은 사물을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할까’ 하는 것을 훈련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쓴 《삶과 죽음에 대하여》에 나오는 구절이다. 세상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상투적인 정의들을 내리기를 강요하고 재촉한다. 정의된 삶에 흐트러진 생의 조각들을 착착 끼워 넣기를 바란다. 우리 인생은 레고와 같다.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었다가도 다시 허물고 또 다른 모양을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쳐왔던 나(에밀)는 정년퇴직 후 아내인 ‘쥘리에트’와 함께 43년 동안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았던 속세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그윽한 안도감이 느껴지는 ‘우리집’으로 이사를 한다.

‘우리집’으로 이사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네 시. 하나밖에 없는 이웃집 남자 ‘베르나르맹’ 이 부부의 삶에 불쑥 끼어든다. 시종일관 ‘예’와 ‘아니오’로만 답하는 남자는 매일 정각 오후 네 시만 되면 ‘우리집’의 초인종을 눌렀고, 오후 여섯 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오후 네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 두 시간동안 벌어지는 질문과 ‘예’와 ‘아니오’라는 짙막한 답의 연속은 에밀과 쥘리에트의 평온한 삶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증상이 지속되면 병은 어느덧 중환의 단계로 넘어가듯이 에밀은 베르나르맹이 ‘예’와 ‘아니오’라고 답하는 것을 즐기는 차원에 다다른다. 에밀의 질문들은 온통 베르나르맹이 ‘예’와 ‘아니오’로 답하도록 만들어졌고, ‘예’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 되려 에밀이 당황해 어쩔 줄 모른다.

“이런 냉혹한 싸움에서 이기는 데는 더 똑똑하다든지 더 사려 깊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머 감각을 갖는

다거나 박학한 지식의 몰살로 상대방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 역시 소용이 없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육중하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숨 막히게 하고, 최대한 예의 없고, 최대한 공허해야 했다.”

에밀은 결국 베르나르맹의 뚱뚱한 육체의 공허때문에 패배했다는 데 결론을 얻는다. 이 소설은 읽는 이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낳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다. 사실 베르나르맹이 ‘예’와 ‘아니오’만을 대답하도록 만든 사람은 바로 에밀이다. ‘예’와 ‘아니오’ 사이의 깊은 심연에서 허우적거린 것도 에밀이며, 베르나르맹의 육체를 공허라는 악으로 치환시키기까지 한다.

“공허의 힘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공허는 냉혹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예를 들어 공허는 선(善)을 거부한다. 공허는 집요하게 선의 길을 가로막지만, 반대로 악(惡)의 침투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처럼, 공통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에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베르나르맹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에밀이 베르나르맹에게 “고통과 권태의 덩어리, 공허 그 자체”라고 쏘아붙였듯이 세상은 우리가 ‘예’와 ‘아니오’로 일축할 때 저변에 감추어진 힘을 감당하지 못한다. 에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공허를 자신이 살아갈 연료로 사용하고, 그 공허를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여 아무런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본성을 갖고 있다. 단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친 교사라는 것만을 기억하고 싶을 뿐.

“사람은 스스로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게 익숙해진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세월이 갈수록 인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인물을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에밀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말은, 이야기를 종결지으면서 다시 한 번 반복한다.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